**[보도자료]**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 12∙12**

**정치군인은 그렇게 ‘지정생존자’가 되었다**

**- <독재자의 비밀-전두환을 읽는 31가지 방법> 전자책 출간**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는 무엇인가?

 12∙12 군사쿠데타와 전두환의 리더십을 독특하게 분석한 ‘2030을 위한 정치교양서’가 나왔다.

 현대정치사 논픽션 <독재자의 비밀-전두환을 읽는 31가지 방법>이 전자책으로 출간되었다고 직업물∙실화 전문기획사 팩트스토리가 12일 밝혔다. 이 책은 저자가 2013년 펴낸 책의 개정판이다. 기자 출신 르포작가인 팩트스토리 고나무 대표가 저자다.

 이 책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시대를 다룬 책들과 몇가지 점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첫째 압도적으로 촘촘한 취재다. 전두환과 그의 시대의 핵심 인물들은 코멘트받기식 취재, 문답식 인터뷰 문장으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고 작가는 판단했다. 전두환 리더십과 그의 집권과정을 새로 돌아보려고 고 작가는 가능한 모든 직간접적 취재를 하였다. 미국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미 국무부 기밀해제문서 원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메모, 국무부 브리핑,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원문 등을 읽고 분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모두 260장 넘는 분량이다. 3공화국과 5공화국 정부 고위직 관료의 회고록 27권도 모두 찾아읽고 분석했다.

 둘째, 이런 취재를 기반으로 12∙12쿠데타가 얼마나 독특한 사건이었는지 젊은 세대 독자로 하여금 반추하게 만든다. 글라이스틴 전 미국 대사는 12∙12쿠데타에 대해 ‘이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쿠데타(coup in all but name)’이라 비유했다. 고 작가는 이런 시각을 이어받아 1979년 12월12일부터 1980년 5월17일 계엄령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 규정한다. 1979년 10월26일 대한민국에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설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독재자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법률상의 지정생존자가 아닌 엉뚱한 ‘또다른 지정생존자’가 대통령을 이어받은 상황이라고 고 작가는 비유한다.

 셋째 풍부한 인터뷰다. 전두환의 최측근이었던 이학봉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두환에 반대했던 육사 동기, 쿠데타군에 저항하다 사망한 병사의 유족, 전두환 전기를 썼던 작가 등 모두 11명을 직접 접촉해 전두환 시대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특히 이학봉 전 수석이 언론 또는 작가와 만나 인터뷰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추정된다.

 넷째 스토리 기획사 대표답게 철저히 사람 이야기로 정치와 역사를 풀어냈다. 고 작가는 서문에서 “낯설게 하기. 정치군인에 대한 역사 논픽션인 이 책을 집필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전지구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정치 체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역설적으로 독재자의 역사를 통해 바라봤다는 취지다.

 고 작가는 “이 개정판 서문은 ‘2022년에 두 번째 대선 투표를 한 젊은 친구’를 상상하면서 썼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세대, 대선 결과로 여야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한 어느 친구에게, 이 글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며 “민주주의는 나의 586 선배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냥 성스럽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당연히 주어지거나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고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자책은 예스24이북(<http://www.yes24.com/Product/Goods/116188324>) 및 알라딘이북(<http://aladin.kr/p/sQgPI>)에서 12일 10시부터 구매가능하다. 13일 이후부터 콘텐츠 플랫폼 리디북스(<https://ridibooks.com/ebook/recommendation>)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 전자책의 초판 종이책은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북콤마)이라는 제목으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종이책 플랫폼에서 주문 가능하다.

**저자 고나무**

실화의 힘은, 낯익은 것 속에서 낯선 진실을 포착하는데서 나온다. 직업물,실화모티프 웹툰웹소설 기획사 '팩트스토리' 대표. 르포논픽션 작가. 전 한겨레기자. 드라마원작 르포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권일용, 고나무 공저),'휴먼스케일'(공저)등. 카카오 스토리펀딩에 〈지존파 납치 생존자의 증언〉을 연재했다.

**팩트스토리**

팩트스토리는 직업물, 실화모티프 웹소설·웹툰 및 논픽션 전문 기획사다. 17년 12월 설립 이후 십여 편의 웹소설 및 논픽션을 공개했고 4건의 영화·드라마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영상화 가능한 원천스토리 기획사를 지향한다.

☞팩트스토리 작품 라인업 <http://factstory.kr/category/real_story/>

|  |
| --- |
| * **보도자료 문의: 팩트스토리**

조경은 피디 070-7771-9449 | kyoungeun@factstory.kr |